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등을 범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채권 (AA-이상), 단기사채 및 기업어음(A2-이상)(유동화포함), 양도성예금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추가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듀레이션을 0.3년 내외 수준을 목표로 채권, 단기사채 및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여 금리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806억 원

펀드유형 증권(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설정일

(운용펀드 : 2025년 01월 14일)

- 클래스 A : 2025년 05월 02일
- 클래스 A-E : 2025년 05월 02일
- 클래스 C : 2025년 04월 03일
- 클래스 C-E : 2025년 04월 08일
- 클래스 C-F : 2025년 01월 14일

벤치마크 Call 100%

신탁업자 우리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2영업일	2영업일
17시 경과후	3영업일	3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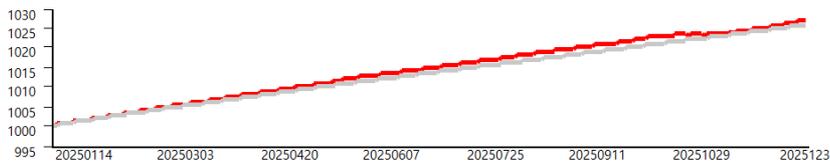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0.28%	0.59%	1.27%	-	-	-	-	2.70%
클래스 A	0.27%	0.55%	1.18%	-	-	-	-	1.63%
클래스 A-E	0.28%	0.56%	1.21%	-	-	-	-	1.65%
클래스 C	0.25%	0.49%	1.07%	-	-	-	-	1.71%
클래스 C-E	0.27%	0.54%	1.16%	-	-	-	-	1.80%
클래스 C-F	0.28%	0.57%	1.23%	-	-	-	-	2.61%
벤치마크	0.22%	0.64%	1.27%	-	-	-	-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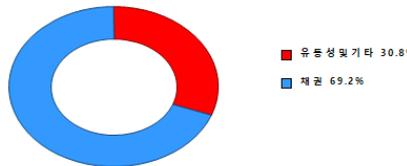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 상기 집합투자기구는 설정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언급된 수익률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출처: AITAS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12월말 기준)

<전체>



<채권 종류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12월말 기준 채권비중)

종목명	비중(%)	종목명	비중(%)
다음투자증권 20251002-92-1(단)	6.2	케이프투자증권 20251024-91-8(단)	6.2
현대차증권 20251010-91-5(단)	6.2	엘에스증권 20251022-92-4(단)	6.2
삼성증권 20251013-92-13(단)	6.2	엔티씨제삼차 20251216-52-1(단)	6.2
디알제삼팔차 20251024-80-4(단)	6.2	케이비증권 20251226-90-20(단)	6.2
롯데카드561-2	6.2	그린파인제일차 20251212-90-1(단)	6.2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0.179% (판매 0.1%)
- 클래스 A-E : 총 연 0.129% (판매 0.05%)
- 클래스 C : 총 연 0.379% (판매 0.3%)
- 클래스 C-E : 총 연 0.229% (판매 0.15%)
- 클래스 C-F : 총 연 0.089% (판매 0.01%)

(공통사항)

운용 0.06%, 신탁 0.01%, 사무관리0.009%

선취수수료

클래스 A: 납입금액의 0.3% 이내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15% 이내
클래스 C, C-E, C-F: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채권시장은 월초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여파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 경기 개선 기대감에 일본 은행(BOJ)의 인상 우려가 더해지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월 중 ECB 슈나벨 이사의 매파적 발언과 RBA 통화정책회의 내 추가 긴축 가능성 언급 등으로 외국인의 국채선물 대량 매도가 부각되며 시장 심리는 재차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RP 매각 증권 확보용 국고채 단순매입(1.5조 원)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연말 특유의 얇은 수급 장세 속에서 외국인 선물 매도세에 연동되며 금리 변동성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환율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BOJ의 금리 인상 단행 이후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국내 시장 역시 취약한 투자심리 속에 약세 압력이 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말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과 수급 대책 발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재개 등에 힘입어 환율이 급락하며 시장 흐름은 반전되었습니다. 1,480원을 상회하던 환율이 1,430원대로 하락함에 따라 국고채 금리 또한 그간의 약세 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며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 대비 3.9bp 하락한 2.951%, 국고채 10년 금리는 전월 대비 4.0bp 상승한 3.385%를 기록하였습니다. 단기물 금리의 경우, 3개월 AA- 여전채는 전월 대비 6.8bp 상승한 3.04%로 마감하였습니다. 동기간 펀드는 A1등급 ABSTB 등을 매수하며 고금리채권 비중을 확대했으며, RP 매수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운용했습니다. 펀드는 BM 대비 약 7bp (보수 차감 후) 상회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월 채권시장은 연초 기관 자금 집행에 따른 매수 수요 유입으로 인해 채권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말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대책 이후 원화 약세 심화 우려가 완화된 점과 더불어, 기재부가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를 연간 발행의 약 8% 수준으로 제시하며 수급 여건을 고려한 물량 조절 의사를 시사한 점 역시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또한 연말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를 통해 물가, 성장, 수도권 주택가격,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년사 등을 통해 시장 안정 관련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전달될 경우, 금리 상방 경계 심리는 한층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월 중 금리 하락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지난 1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을 언급한 다수 위원들이 내년 중 마이너스 아웃풋 갭 해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 대응 차원의 추가적인 정책 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금리 하락 모멘텀 형성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역시 지속되는 환경으로, 10-15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정부의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환시장 안정이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 점화될 수 있으며, 글로벌 주요국 통화정책의 완화 사이클 마무리 국면 진입은 금리 인상 경계감을 자극하는 부담 요인입니다.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유력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그널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레딧 시장은 연초 기관 자금 집행에 따른 매수 수요 유입으로 캐리 수요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대된 금리 레벨을 감안 시 크레딧물의 절대 금리 메리트는 이전 대비 높아진 상황이며, 크레딧 스프레드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시장은 12월말 기준 3개월 A1 CP의 경우 3.19%, 회사채 AA-의 경우 3.03%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기시장 또한 크레딧 시장과 마찬가지로, 절대금리 매력 상승 및 연초 효과 등에 기반한 강세가 예상됨에 따라 3개월 이상 중목 위주 편입을 이어갈 계획이며 금리 메리트 있는 CP 및 전자단기사채 등을 추가로 편입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